

호세아 11장의 은유적 해석

- 초기 번역본들 대조를 통한 본문 비평적 연구 -

박경희*

1. 들어가는 말

호세아서 예언들은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의 삶을 표현 하는데 있어, 은유나 직유를 통한 고도로 상징적이고 조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야훼의 본질과 성품이 회화적인 이미지들을 통하여 묘사¹⁾되는데, 이러한 은유나 직유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변절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을 향한 야훼의 변함없는 사랑의 본질을 암시하고 있다. 호세아 11장은 부모 은유(the parental metaphor)를 통해 이 사랑의 절정을 보여준다. 이는 호세아서 신학의 핵심인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11:9)’로서의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끌어안고 치유하며, 새로운 삶의 길을 여는 화해의 문이다. 호세아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 사랑’을 내포하는 11장 부모 은유 해석을 위해서는 본문 재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본문 비평적 분석(a textual-critical analysis)을 통한 호세아 11장의 번역과 신학적 암시에 대한 은유적 해석이다. 호세아 11장은 부분적으로

*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강사, 구약학.

1) 야훼는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는 남편(2:4[2]), 반항하는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부모(11:1), 이집트 땅에서 그의 백성을 해방시킨 구원자(13:4), 인류의 창조자(8:14), 그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자(11:9), 만군의 하나님(12:6[5]), 그의 백성을 치료하시는 외과의사(7:1; 14:5[4]), 사냥감에 그물을 치는 사냥꾼(7:12), 들짐승들을 잡는 사자(5:14; 11:10; 13:8), 사냥감을 유혹하는 표범(13:7), 새끼를 빼앗긴 암곰(13:8), 만물을 신전하게 하는 아침이슬(14:6[5]), 하루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새벽(6:3), 땅을 적시고 양분을 공급하는 비(6:3), 늘 푸른 상록수(14:9[8]), 좋아하는 물건을 먹어치우는 쯤이나 해로운 박테리아(5:12) 등으로 묘사된다.

번역이 난해한 문장구조를 이룬다.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마소라 본문의 문장 구조를 따라 번역하되, 본문 교정이 불가피한 부분은 초기 구약성서 번역본들을 비교하여 가치 있는 본문을 설정하고 히브리어 본문을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본문 재구성은 마소라 본문의 구조와 의미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호세아 11:1-7로 한정하며, 11:8-11은 마소라 본문을 그대로 따른다. 본문 비평적 분석으로 호세아 11장 다시읽기는 본문 재구성을 통한 통일된 문학 구조 안에서, 부모 은유가 암시하는 신학적 해석²⁾을 적용하여 인간 회복을 위한 하나님 사랑을 재발견 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문 비평적 분석을 통해 부모 은유를 내포하는 통일성 있는 문학 구조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3. 본문번역과 비평적 분석

본문 재구성이 요구되는 호세아 11장 히브리어 본문은 아래와 같다.

1 כי נער ישראל ואהבהו וממצרים קראתי לבני:
 2 קראו להם כן הלכו מפניהם
 לבעלים יזבהו ולפסלים יקטרון:
 3 ואנכי תרגלתי לאפרים קחם על-זרועתיו
 ולא ידעו כי רפאתים:
 4 בחבלי אדם אמשכם בעבתות אהבה
 ואהיה להם כמרמיני על על לחיהם
 ואט אליו אוכיל:
 5 ישוב אל-ארץ מצרים ואשור הוא מלכו
 כי מאנו לשוב:

2) 이 과정은 M. Black, *Models and Metaphor: Studies in Language and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2); L. G. Perdue, *The Collapse of History: Reconstructing Old Testament Theology*,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L. G. Perdue, *Wisdom in Revolt: Metaphorical Theology in the Book of Job*, *Bible and Literature Series 29* (Decatur: The Almond Press, 1991); I. A. Richards, *The Philosophy of Rhetoric*(1936; 재인쇄,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P. Ricoeur, *The Rule of Metaphor*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7); P. Tribble,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and P. Wheelwright, *Metaphor and Reali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2)에서 제시한 은유의 개념과 수사학적, 언어학적, 철학적, 문학적 이해를 기본으로 본문의 해석에 적용하였다.

6 וחלה חרב בעריו וכלתה בדיו
 ואכלה ממעצותיהם:
 7 ועמי תלואים למשובתי
 ואל־על יקרא הו יחד לא ירומם:
 8 איך אתנף אפרים אמנף ישראל
 איך אתנף כאדמה אשימף כצבאים
 נהפף עלי לבי יחד נכמרו נחומי:
 9 לא אעשה חרון אפי לא אשוב לשחת אפרים
 כי אל אנכו ולא־איש
 בקרבך קדוש ולא אבוא בעיר:
 10 אחרי יהוה ילכו כאריה ישאג
 כי־הוא ישאג ויחרדו בנים מים:
 11 יחרדו כצפור ממצרים וכיונה מארץ אשור
 והושבתים על־בתיהם נאם־יהוה:

3.1. 번역

1.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자녀를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2. 내가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내 앞에서 멀리 떠나 갔고,
 짐승을 잡아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온갖 우상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다.
3. 그러나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안에 안아서 길렀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4. 내가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 엮어주었고,
 잣난아기를 들어올려 뺨을 부비는 부모처럼,
 그들을 들어올려 뺨을 맞추어 주었으며,
 몸을 구푸려 가슴을 헤치고 젖을 먹였다.
5.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겠지만,

- 그러나 앓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6. 전쟁의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휩쓸고 지나갈 것이며,
성읍 안에 거짓예언자들의 헛된 계획을 부수고, 그들을 삼킬 것이다.
7. 내 백성이 나를 반역하고 돌아서서,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절대로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8.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에게]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두겠느냐?
내 마음이 심히 혼란스럽구나!
너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내 속에서 점점 일어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는구나.
9. 나의 불같은 화를 발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다.
나는 분노로 너희에게 온 것이 아니다.
10.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처럼 부르짖는 야훼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그가 부르짖으실 때에,
그의 자녀들이 서쪽에서 떨며 올라올 것이다.
11. 이집트 땅에서 새처럼 빨리 날아오고,
앗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와 살게 하겠다.
주의 말이다.

3.2. 본문 비평적 고찰

1. 가. וואהבהו. 타르굼에서는 “וקריבתי לפלחני(내가 그를 나를 예배하도록 가까이 이끌었다)”는 구절이 더해졌다.

1. 나. לבני. 호세아서는 일반적으로 야훼와 이스라엘 관계를 결혼 은유(the marriage metaphor)를 통해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지만, 11장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 묘사한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의 은유로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아들(בן)”로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성(male/female)”을 대표하는 언어를 피하고 ‘자녀’로 번역한다. 실질적으로 본문에서 “בני(나의 아들)”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지 특정 개인, 아들이 아니다. 칠십인역은 “τὰ τέκνα αὐτοῦ(그의 자녀들)”로 복수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암시하는 의미로 번역한다. 타르굼 역시 “קריחי להון בניי(내가 그들, 자녀들을 불렀다)”로 복수형을 취한다. 이들은 아마도 2-7절에서 이스라엘을 복수형으로 사용하는 것과 통일성을 이루기 위함인 듯하다.

2. 7-7. קראו. 마소라 본문은 1절과 달리(1인칭 단수) 갑자기 주어가 3인칭 남성 복수로 바뀌면서 주어와 목적어의 의미가 문맥 안에서 모호하게 드러난다. 주어진 문장을 직역하면 “קראו להם כן הלכו מפניהם(그들이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그들을 멀리 떠나갔다).” 호세아 11장은 역사적 회고를 통하여 반영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선포하는 야훼의 1인칭(10절에서 3인칭으로 쓰인 것을 제외하고) 메시지이다. 1절에서 이스라엘을 부른 야훼와 통일성을 위해 קראו는 פקראו로 읽는 본문교정이 요구된다. 칠십인역과 페쉬타는 이러한 통일성을 적용하였다. 칠십인역은 “καθὼς μετεκάλεσα αὐτοὺς οὕτως ἀπόχοντο ἐκ προσώπου μου(내가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내 앞에서 멀리 떠나갔다)”로 읽는다. 페쉬타 역시 같은 의미로 읽는다: “אך דקרו אנון הכנא אזלו מן קלדמו: (내가 그들을 부를 때면, 그들은 곧장 내 앞에서 멀리 떠나갔다).” 만약 마소라 본문을 그대로 읽는다면 קראו는 “그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수동적 의미³⁾로 번역이 가능하며, 따라서 1절과 3절의 메시지 선포자로서 야훼와 주어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מפניהם(그들로부터)”의 3인칭 남성 복수 접미사 הם을 그들을 부르는 주체인 야훼로 받는다면 억지가 있다. 마소라 본문의 바른 이해를 위해 מפניהם은 “מפני הם(나로부터, 그들이)”으로 읽어야 한다. “קרא(부르다)”와 “הלך(가다. 걷다)”, 두 동사의 행동 양식은 본문에서 문학적으로 서로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문장구조 כפכב 혹은 כפכבן에서 서로 상응 관계로 해석된다.⁴⁾ פקראו להם כן הלכו מפני, “내가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

3) E. Kautzsch, ed, *Gesenius' Hebrew Grammar*, 2nd ed., A. E. Cowley, trans., (Oxford: Clarendon Press, 1910), 460, §144g; and P. Jouon, *The Grammar of Biblical Hebrew*, part 3, *Syntax, Paradigms and Indices*, T. Muraoka, trans., Subsidia Biblica 14/II (Rome: Editric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2000), 461-42, §128b; 579, 155i. 3인칭 인칭대명사 복수형(“They” 혹은 “one”)은 때로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한 불명확한 주격으로 쓰인다(참조, 욕 4:19; 6:2; 7:3; 18:18; 19:26; 34:20; 시 63:11; 잠 2:22).

4) Kautzsch, *Gesenius' Hebrew Grammar*, 499, §161c; Jouon,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part 3, 643-44, §174c, 174i.; *BDB*, 486; and *HALOT*, 454.

서 멀리 떠나갔다.” 여기서 כ는 두 동사(קרא와 הלך)의 동작을 행하는 주체와 비교급 문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타르쿰은 마소라 본문과는 의미가 다르게 읽는다. 의미가 불명확한 3인칭 남성 대명사 복수형 “그들(they)” 대신 “예언자들”로 읽으므로 2하반절의 “מפניהם(그들로부터)”과 통일성을 가진다:

וּפְהוֹן טָעוּ מִקְבִּיל אִפְהוֹן, שְׁלַחִית נְבִי לְאַלְפָּא לְהוֹן וְאַנּוֹן טָעוּ מִקְבִּיל אִפְהוֹן,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나의 예언자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서 떠나 타락했다.”

2. ל-ל. מפניהם. 2상반절의 비교급 문장 해설에서 언급했듯이 마소라 본문의 바른 이해를 위해 מפניהם은 הם מפני로 읽어야 한다. 여기서 הם은 3인칭 남성 복수 접미사가 아니라, 2하반절을 이끄는 주격 인칭대명사로 읽어야 한다. BHS 마소라 본문이 제시하는 본문 비평적 각주(*apparatus criticus*) 역시 칠십인역을 따라 2상반절을 מפני הלכו להם כן כקרא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3. ג-ג. תרגלתי. 동사의 활용변화에서 티펠(Tiphel)형(תרגלתי, I taught to walk, 내가 걸음마를 가르쳤다) 사용은 매우 빈도가 낮다.⁵⁾ 이는 사역형 히필(Hiphil)과 비슷한 의미(I made walk, 내가 걸을 수 있도록 했다)를 가진다. 칠십인역은 “συνποδίζω(양발을 함께 묶다)”에서 파생한 “συνεπόδισα (내가 양발을 묶었다)”로 읽는다. 심마쿠스는 “ἐπαιδάωγουν(내가 훈련했다, 혹은 내가 양육했다)”로 번역하는 반면, 테오도시온은 “κατὰ πόδας (내가 그의 발 뒤꿈치에 있었다)”로 읽는다. 불가타는 부모의 관심과 돌봄을 표현한다: “ego quasi nutricius (내가 양육한 부모였다).” 타르쿰은 קדמי מן קדמי שליח מן במלאך를 더하여 3상반절을

וְאַנָּא בְּמַלְאָךְ שְׁלִיחַ מִן קִדְמִי דְּבְרִית בְּאוּרַח תְּקַנָּא יִשְׂרָאֵל, “내가 보낸 메신저들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옳은 길로 인도했다”로 읽는다.

3. ל. על-זרועתי. 마소라 본문의 문학적 통일성과 주어의 일관성을 위해 “על-זרועתי(그의 품안에)”를 “על-זרועתי(나의 품안에)”로 읽어야 한다. 본 구절 על-זרועתי의 3인칭 남성 단수 접미사 ו를 중복오사(dittography)로 이해하기도 한다. על-זרועתי ולא是 על-זרועתי ולא의 중복오사로 본다.⁶⁾ 칠십인역, “ἐπὶ τὸν

5) Kautzsch, *Gesenius' Hebrew Grammar*, 153, §55h; and Jouon,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part 1, 169, §59e.

6) 예를 들면 G. Davis, *Hosea*, The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2), 255-256; G. Eidevall, *Grapes in the Desert: Metaphors, Models, and Themes in Hosea 4-14* (Stockholm: Almqvist and Wiksell International, 1996), 171; and D. Stuart, *Hosea-Jonah*,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1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7), 175.

βραχίονά μου(나의 품안에)”, 페쉬타, “על הרעי(나의 품안에)”, 불가타, “*in brachiis meis* (나의 품안에)”, 모두 על-זרועתי로 읽는다. 타르굼에서는 접미사가 생략되고 “על הרעי(품안에)”로 읽는다.

3. ד. חקק. 마소라 본문을 3인칭 남성 복수 접미사를 동반한 부정사 절대형으로 읽는다면, 행동의 특별한 역할을 보여주는 “그들을 안고 있는(taking them)”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문은 접속사를 동반한 미완료시제 וחקק으로 읽어야 전체적인 문맥구조 안에서 의미가 분명해진다: וחקק על-זרועתי,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내 품안에 안았다.” 페쉬타는 “וקבלת אנן(그리고 내가 그들을 안았다, 혹은 품안에 받아들였다)”로 읽는다. 불가타의 “*portabam eos*(내가 그들을 안았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 칠십인역은 에브라임을 3인칭 단수 목적어로 받는다: ἀνέλαβον αὐτού, “내가 그를 안았다.” BHS의 본문 비평적 각주 (*apparatus criticus*)의 본문 교정을 따라 위에서 설명한 대로 “על-זרועתי(그리고 내가 그들을 내 품 안에 안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4. ג-ג. על כמרמיני. 4절의 번역은 על을 “על(갓난아이, 혹은 젖먹이)”로 읽느냐 아니면 “על(명예)”로 읽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본문을 “על(명예)”로 읽을 경우, 야훼는 그의 가축의 명예를 벗겨 가볍게 해주는 선한 농부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⁷⁾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이 암소로 묘사된 부분이 있지만(4:16; 10:11), 명예를 가축의 얼굴 부분과 함께 사용하는 직유(simile)는 적절하지 않다. 보통 명예는 목이나 어깨와 조화를 이룬다(참조, 사 9:4; 10:27). 또한 명예로 번역할 경우 다음 문장과 의미 연결이 모호하다. 호세아 11장은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한다. ‘야훼’나 ‘이스라엘’을 독자적으로 묘사할 때는 동식

7) 참조, F. I. Anderson and D. N. Freedman, *Hosea: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vol. 24 (Garden City: Doubleday, 1980), 581-582; Eidevall, *Grapes in the Desert*, 172-173; A. I. Ezra, *The Commentary of Rabbi Abraham Ibn Ezra on Hosea*, A. Lipshitz, ed. and trans. (New York: Sepher-Hermon Press, Inc., 1988), 103; D. Garrett, *Hosea, Joel*, The American Commentary, vol. 19A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7), 224-245; J. Jeremias, *Der Prophet Hosea*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3), 142; A. A. Macintos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Hosea*,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997), 448; T. McComiskey, *The Minor Prophet: Hosea, Joel, and Amo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2), 1:185; W. Rudolph, *Hosea*,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Gutersloh: Gu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6), 214-215; D. Stuart, *Hosea-Jonah*, 179; and G. A. Yee, *Composition and Tradition in the Book of Hosea: A Redaction Critical Investigation*, SBL Dissertation Series 102 (Atlanta: Scholars Press, 1987), 217-218.

물(호 5:14; 7:11; 8:9; 9:10, 13; 10:1, 4; 13:7-8; 14:4-5[6-7]), 혹은 자연현상(호 6:3, 4; 8:7; 14:5[6])의 직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호 관계’ 묘사에 있어서는 ‘농부와 가축’ 혹은 ‘주인과 짐승’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호세아 11장의 부모 은유를 통한 야훼와 이스라엘 관계는 야훼가 목자나 선한 농부의 모습이 아니라, 반역하는 자녀로 인하여 고통하면서도 변함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다. 초기 번역본들이 마소라 본문의 문자적 음역을 따라 “על(명에)”로 읽고 있지만,⁸⁾ BHS의 본문 비평적 각주(*apparatus criticus*)를 따라 “עול(갓난아이, 혹은 젖먹이)”로 읽는 것이 합당하다.⁹⁾ 따라서 “על כמורמי עול(명에를 벗기는 사람처럼)”은 “עול כמורמי עול(갓난아이를 들어올리는 사람처럼)”로 번역해야 본문을 통일성 있게 이해할 수 있다.

4. וַאֲנִי אֵלֶיךָ אֹכִיל. 4절의 마지막 구절은 5절을 여는 부정사 וַאֲנִי와 연결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וַאֲנִי는 여기서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ל와 3인칭 남성 단수 접미사 י와 결합된 לו로 읽는다: וַאֲנִי אֹכִיל לו, “그리고 내가 그에게 구푸려 그를 먹였다.” 5절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예언적 메시지(참조, 호 7:11; 8:13; 9:3; 11:11; 12: 2[1])에서 호세아는 이집트로 도움을 요청하러 되돌아가려는 이스라엘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특히 호세아 4-14장의 역사적 배경과 정황을 고려할 때, 5절은 부정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치, 사회적으로 직면한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וַאֲנִי는 접속사 ו와 결합된 히필(Hiphil) 미완료시제로 어근은 “נטה(기울다, 몸을 구푸리다, 뺨치다, 쪽 퍼다, 확장하다)”로 읽거나, 형용사 “אט(온화한, 친절한, 부드러운, 점잖은)”의 부사적 의미 “친절하게”, “부드럽게”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וַאֲנִי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항상 전치사 ל를 동반하여 행동양식이나 상황의 정황을 설명한다(참조, 창 33:14; 삼하 18:5; 욥 15:11; 사 8:6).¹⁰⁾ 본문에서는 갓

8) 칠십인역은 על을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훈련하고 교훈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듯 ὡς ῥαπίδων ἄνθρωπος(“[그의 뺨을] 때리는 사람같이”)로 번역한다. 타르쿰은 그의 가축을 돌보는 선한 농부로 묘사한다: כַּאֲכִילָהּ כְּבַחֵר הַחֹרֵב (“황소의 짐을 털어 가볍게 만드는 선한 농부같이”).

9) 참조, B. C. Birch, *Hosea, Joel, and Amo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96; M. Buss, *The Prophetic Word of Hosea: A Morphological Study* (Berlin: Verlag Alfred Topelmann, 1969), 22; G. Davis, *Hosea*, 257; J. L. Mays, *Hosea*,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9), 150; H. Schungel-Straumann, “God as Mother in Hosea 11”, *Theology Digest* 34:1 (Spring 1987), 4-5; J. M. Ward, *Hosea: A Theological Commentary* (New York: Harper & Row, 1966), 191; and H. W. Wolff, *Hosea: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Hosea*,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191.

10) 문법적 설명은 BDB, 31을 보라. 왕상 21:27에서 유일하게 전치사 ל가 생략되고 אט 단독으

난아기(혹은 젓먹이)에 대한 부모의 행동을 설명하는(אוֹכִיל) 내용으로 이해할 때, וַאֲט는 הִפְחִיל(Hiphil) 미완료시제 1인칭 공동 단수와 접속사ו의 연속형(continuous)으로 읽어야 문장 의미가 명확하다.

אוֹכִיל은 접속사를 동반하지도 않았고, 문장에서 אָכַל의 적합한 활용변화를 줄 수 있는 전치사 ל와 결합하여 부정사 연계형(constructive)으로도 쓰이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지속적인 행동 이미지를 의미한다. 문맥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לו אוֹכִיל אֱלֹהֵי וַאֲט는 접속사 생략 문장(asyndeton)으로 읽어야 한다(참조, 호 1:6, 9; 5:11; 6:4; 9:9; 10:11; 13:3).¹¹⁾ 칠십인역은 וַאֲט를 וַאֲבַט “נָבַט(바라보다, 주시하다)”의 히필[Hiphil] 미완료 1인칭 공동 단수로, אוֹכִיל을 אוֹכִילו “יָכַל(할 수 있다)”의 히필[Hiphil] 미완료 1인칭 공동 단수와 3인칭 남성 단수 접미사의 결합으로 읽는다: καὶ ἐπιβλέψομαι πρὸς αὐτόν, δυνήσομαι αὐτῷ, “그리고 내가 그를 주목해서 살필 것이고, 그를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아퀼라는(καὶ ἔκλινα πρὸς αὐτοὺς βρώματα), 심마쿠스(καὶ ἐξέκλινα πρὸς αὐτοὺς βροφήν), 테오도시온(καὶ ἔκλινα πρὸς αὐτοὺς βρώσιν)은 וַאֲט를 וַאֲט, הִפְחִיל의 갈[Qal] 미완료 1인칭 공동 단수로 읽으며, אוֹכִיל을 명사 “음식(food)”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음식을 건네주었다.” 페쉬타 역시 וַאֲט를 וַאֲט로 읽는다: וַאֲרַכְנַת לְהוֹן וַאֲכָלוּ, “내가 그들에게 구꾸려 그들을 먹였다.” 불가타도 같은 맥락으로 번역한다: *et declinavi ad eum ut vesceretur*, “내가 그를 먹게 하려고 그에게 구꾸렸다.” 타르쿰은 이스라엘의 광야생활을 회상하는 하나님의 회고로 이해한다:

לְמִיכָל הוּוּ בְּמִדְבָּרָא אֲסִנְיָהּ לְהוֹן טוּבָא לְמִיכָל, “그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내가 그들을 먹이려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었다.”

5. 7. לֹא יָשׁוּב. 4. 1-2에서 언급했듯이 부정사 לֹא는 לו로 읽으며 4절을 마무리한다. 5절은 יָשׁוּב에서 시작된다: יָשׁוּב אֶל-אֶרֶץ מִצְרַיִם, “그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만약 본문을 그대로 יָשׁוּב לֹא로 읽는다 해도 부정사 לֹא를 “확실성(certainty)”을 의미하는 단언 불변화사(an asseverative particle)로 이해해야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¹²⁾ 따라서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확실하게(surely,

로 쓰였다. 형용사 אָט는 항상 부사적 의미로 쓰인다.

11) 문법적인 활용은 Kautzsch, *Gesenius' Hebrew Grammar*, 386, §120g-h; 484, §154a를 보라.

12) 문법적인 설명은 Jouon, “Asseverative Clause”,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616-618을 참조하라. 이를 적용한 해석은 Anderson and Freedman, *Hosea*, 583-584; R. Gordis, *The Word and the Book: Studies in Biblical Language and Literature*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Inc., 1976), 167, 182; W. Kuhnigk, *Nordwestsemitische Studien zum Hoseabuch*, *Biblica et Orientalia*, no. 27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4), 133-134; and G. Yee, *Composition and Tradition in the Book of Hosea: A Redaction Critical Investigation*, SBL Dissertation Series 102 (Atlanta: Scholars Press, 1987), 221.

absolutely) 단언하는 의미가 된다. 이는 11상반절(“이집트 땅에서 새처럼 빨리 날아오고”)을 전제로 한 이해이다.

6. 7. בָּרִיּוֹ. 본문에서 בָּרִיּוֹ/בָּרִיּוֹ의 의미는 다양하게 번역된다.¹³⁾ 첫째, בָּרִיּוֹ I “분리되다”, “격리되다”, “고립되다”에서 파생한 명사로 “분리”, “고립”, 혹은 “한 부분”의 의미를 뜻한다. 복수형 בָּרִיּוֹם은 일반적으로 (1) 한 본체의 “부분들(부속들)”, “구성원들”, (2) 포도나무의 “싹들”, “가지들”, (3) 케나 제단, 향로 등 제사 기물을 운반하는 “막대들”, “널판들”, (4) 성문이나 요새의 “빗장들”을 의미한다. 둘째, בָּרִיּוֹ II “헛되이(무익하게) 말하다”에서 파생한 “헛소리하는 사람”, “거짓 예언자”, “신탁 제사장”을 의미한다. 셋째,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면포(리넨, linen)”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מִמְעֻצוֹתיהֶם(그들의 헛된 계획 때문에)”와 통일성 있는 의미를 가지는 두 번째 “거짓 예언자”로 번역한다.

호세아 4-14장의 전체적인 문학구조에서 보면, 4:1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법적 논쟁(divine legal dispute)”은 백성들을 파탄으로 인도한 정치, 종교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북 왕국 말기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쿠데타를 보더라도(참조, 7:3-7; 8:4, 14), 정치, 종교지도자들의 음모와 계락을 암시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야훼의 진노가 그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 거짓 지도자들의 계획이 헛된 것이 될 것을 암시한다. 칠십인역은 בָּרִיּוֹ를 “יָדָיו(그의 손안에)”로 읽는다: ἐν ταῖς χερσὶν αὐτοῦ, “그의 손안에.” 심마쿠스도 같은 맥락에서 “τοὺς βραχίονας αὐτοῦ(그의 팔)”로 읽는다. 페쉬타는 칠십인역과 같은 의미로 읽되 복수형 접미사를 가진다: מִן אִידֵיהוֹן, “그들의 양손에서.” 불가타는 “electos eius(그의 선택된 자들)”로, 타르굼은 “ניבְרוּהֵי(그들의 용사들)”로 읽는다.

7. 7. 7. ועָמִי תְלוּאִים לְמִשׁוּבְתֵי וְאֵלֶּעַל יִקְרָאָהוּ יְהוָה לֹא יְרוּמִם. 이 본문은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번역이 난해한 구절 중의 하나다. 아마도 스미스(D. Smith)의

13) Anderson and Freedman, “strong men”, *Hosea*, 574, 585-586; Kuhnigk, “counselor”, *Nordwestsemitische Studien zum Hoseabuch*, 135; Macintosh, “villages”, *A Critical Exegetical Commentary on Hosea*, 452; Mays, “oracle-priests”, *Hosea*, 150; McComiskey, “gate bolts”, *The Minor prophets*, 1:187-188; D. A. Smith, “the bars (of a fortress)”, *Kinship and Covenant: An Examination of Kinship Metaphors for Covenant in the Book of the Prophet Hosea* (Ph.D. diss., Harvard University, 1994), 138; D. Stuart, “false prophets”, *Hosea-Jonah*, 174; and Wolff, “braggarts”, *Hosea*, 192. Cf. *BDB*, 94-95; *HALOT*, 108-109; Hans-Jurgen Zobel, “בָּרִיּוֹ/בָּרִיּוֹ”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Botterweck and Ringgren, trans., D. E. Green e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1: 473-479; and C. V. Dam, “בָּרִיּוֹ”,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and Theological Exegesis*, W. A. VanGemeren, ed., 5 vol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1: 600-602.

고백이 본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It is best to leave all of 11.7 untranslated.”¹⁴⁾ 현대 번역된 성서들도 어휘 선택에 다양한 견해를 보인다.¹⁵⁾

본 연구에서는 호세아 11장 전체의 문학적 구조를 고려하여 본문 교정을 시도하고 번역한다. 마소라 본문의 על 은 신의 이름을 지칭하는 עליון 혹은 אל 로¹⁶⁾, 혹은 가나안의 기후(특히 비나 폭풍)를 관장하는 신 בעל 로¹⁷⁾ 번역해야 전체적인 의미전달이 확실해진다. 아마도 마소라 본문은 על 이 על 로 잘못 필사된 결과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 בעל (Baal, 바알)”로 읽는다. 이는 2절에 언급된 바알숭배와도 통일성을 갖는다. 2절은 야훼의 부름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7절 역시 지속적인 이스라엘의 변절(apostasy)이 바알을 좇는 것으로 묘사된다. 본문 번역이 난제이지만, 초기 번역본들은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야훼에 대한 반역과 압박한 심판의 내용을 의미하는 번역을 시도한다. 칠십인역은 다음

14) Smith, “Kinship and Covenant”, 140에서 인용. “최선의 방법은 11:7을 번역하지 않는 것이다.”

15) 『새번역』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개역개정』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공동개정』 내 백성이 끝내 나를 저버리고 바알을 불러 예배하지만, 바알은 저희를 높여주지 않으리라. NIV: “My people are determined to turn from me. Even if they call to the Most High, he will by no means exalt them.” RSV: “My people are bent on rebellion, but though they call in unison to Baal he will not lift them up.” NRSV: “My people are bent on turning away from me. To the Most High they call, but he does not raise them up at all.” NASB: “So my people are bent on turning from me. Though they call them to *the One* on high, None of at all exalts *Him*.” NJB: “My people are bent on disregarding me; if they are summoned to come up, not one of them makes a move.” TNK: “From my people persists in its defection from me; when it is summoned upward, it does not rise at all.” LUO: “Mein Volk ist mude, sich zu mir zu kehren, und wenn man ihnen predigt, so richtet sich keiner auf.” EIN: “Mein Volk kehrt nicht um und halt an seiner Auflehnung gegen mich fest. Sie rufen zum Baal, aber der kann ihnen nie und nimmer helfen!” TOB: “Mon peuple! ils s'accrochent à leur apostasie: on les appelle en haut, mais, tous, tant qu'ils sont, ils ne s'élèvent pas.” NEG: “Mon peuple est enclin à l'inconstance envers moi; On les appelle vers (celui qui est) enhaut. Mais aucun d'eux ne se lève.”

16) Anderson and Freedman, *Hosea*, 574; Birch, *Hosea, Joel, and Amos*, 97; Garrett, *Hosea*, 218; Guenther, *Hosea and Amos* (Scottsdale: Herald Press, 1998), 178; Ezra, *The Commentary of Rabbi Abraham Ibn Ezra on Hosea*, 104; Jeremias, *The Prophet Hosea*, 137; and G. V. Smith, *Hosea/Amos/Micah*,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2001), 159.

17) D. Daniels, *Hosea and Salvation History: The Early Traditions of Israel in the Prophecy of Hosea* (Berlin: W. de Gruyter, 1990), 65; H. Gross, “Das Hohelied der Liebe Gottes: Zur Theologie von Hosea 11”, H. Rossmann and J. Ratering, eds., *Mysterium der Gnade: Festschrift für Johann Auer zum 65* (Regensburg: Friedrich Pustet, 1975), 84; Mays, *Hosea*, 150; Stuart, *Hosea-Jonah*, 174; Ward, *Hosea*, 191; and Wolff, *Hosea*, 192.

과 같다: Καὶ ὁ λαὸς αὐτοῦ ἐπικρεμάμενος ἐκ τῆς κατοικίας αὐτοῦ· καὶ ὁ θεὸς ἐπὶ τὰ τίμια αὐτοῦ θυμωθήσεται, καὶ οὐ μὴ ὑψώσῃ αὐτόν, “그리고 실제로 그의 백성이 그들의 거주지에서 옮겨지는 압박한 위협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존귀하심을 거스려 화를 발하실 때, 아무도 그를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아퀼라, 심마쿠스, 테오도시온은 **כַּעֲשֵׂה**을 마소라 본문의 4절 “**כַּעֲשֵׂה**(명예)”과 통일성을 갖는 “명예(ζυγος)”로 읽는다. 아퀼라역은 다음과 같다: Καὶ ὁ λαὸς αὐτοῦ ἐπικρεμάμενοι ἐκ τῆ ἐπιστροφῆ μου, καὶ πρὸς ζυγὸν καλέσει αὐτὸν ἅμα, οὐχ ὑψώσει αὐτούς, “그리고 그의 백성이 나의 돌아섬을 바랄 것이며, 그들이 전적으로 그에게 명예 벗겨주기를 호소하겠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을 것이다.” 심마쿠스는 다음과 같다: Καὶ ὁ λαὸς αὐτοῦ ἐπικρεμάμενος εἰς τὸ ἐπιστρέφειν πρὸς μὲ, ζυγὸς δὲ συναντήσῃ αὐτῷ ὁμοῦ, ὅς οὐκ ἀρθήσεται, “그리고 그의 백성이 나에게 돌아오겠지만, 곧바로 누구도 벗길 수 없는 명예가 그들에게 씌워질 것이다.” 테오도시온은 다음과 같다: Καὶ ὁ λαὸς αὐτοῦ ἐπικρεμάμενος εἰς ἐπιστρέφῃν αὐτοῦ, καὶ εἰς ζυγὸν καλέσει αὐτὸν ἅμα οὐχ ὑψώσει αὐτούς, “그리고 그의 백성이 그의 돌아섬을 바랄 것이며, 그들이 전적으로 그에게 명예 벗겨주기를 호소하겠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을 것이다.” 아퀼라, 심마쿠스, 테오도시온과 같이 **כַּעֲשֵׂה**을 “**כַּעֲשֵׂה**(명예)”로 읽는 대표적인 해석이 예(G. Yee)에 의해 재구성된다.¹⁸⁾ 예(Yee)는 교차적 문학구조(a chiasmic structure) 안에서 4하반절과 7하반절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설명한다. 4하반절(“I was to them those who remove the yoke from upon their jaws”)에서 야훼의 긍정적인 태도가 7하반절(“To the yoke they appointed. No one will remove it”)¹⁹⁾에서 심판으로 대조를 이루며 교차적인 구조를 형성한다고 이해한다. 4하반절에서는 야훼가 ‘명예’를 벗겨 자유를 주는 반면, 7하반절의 ‘명예’는 포로생활의 상징으로 이해한다. 6절의 전쟁으로 인한 과멸 후에 이어지는 7절은 이스라엘이 변절의 결과로 포로생활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으로 본다. 불가타도 “명예(iugum)”로 읽는다: *et populus meus pendibit ad reditum meum iugum autem inponetur ei simul quod non auferetur*, “그리고 내 백성이 나의 돌아섬을 오랫동안 기다리겠지만, 누구도 벗길 수 없는 명예가 그들 모두에게 씌워질 것이다.” 페쉬타는 “하나님(כַּעֲשֵׂה)”으로 읽는다:

18) Yee, *Composition and Tradition in the Book of Hosea*, 223.

19) 영어 문장은 예(Yee)의 번역을 인용. Yee, *Composition and Tradition in the Book of Hosea*, 223. 에테발도 이 본문을 4절과 더불어 “명예 은유(the yoke metaphor)”로 이해하며 4절에서는 야훼가 명예를 벗겨주는 자유를, 7절은 명예를 씌우는 억압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Eidevall, *Grapes in the Desert*, 177. 데비스와 루돌프 역시 “명예”로 읽는다. Davis, *Hosea*, 260; Rudolph, *Hosea*, 208.

: ועמי תלין לטבת לוהי ולא־להא נקרון ונרנא איך חדא ולא נתתרים: “그리고 내 백성이 반역하여 나에게서 돌아서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한 함께 의논할지라도, 아무도 그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타르쿰은 이스라엘이 직면할 고통에 대한 내용으로 마소라 본문과 의미를 같이 한다:

: ועמי פליגון לטבת לאוריחי במרועא קשיא יתערעון כחדא לא יהכון בקוטא זקופא: “그리고 내 백성이 내 법 [가르침]으로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있다[결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무덤에서 위기를 맞을 것이며, 똑바로 서서 견지도 못할 것이다.”

BHS의 본문 비평적 각주(*apparatus criticus*)의 제안대로 7절을 재구성하면, 본문을 “ועמי נלאה ממשובתו ואל־בעל יקרא האחדל ארחם” (내 백성이 스스로 반역하여 치져 있으며, 바알에게 부르짖지만, 내가 [그들을] 버리고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로 읽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합당한 문장 재구성이 불가능하지만, על을 “바알(בעל)”로 읽으면서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 백성이 나를 반역하고 돌아서서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절대로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로 번역한다.

4. 본문 재구성을 통한 은유적 해석

본문 비평 분석을 통한 호세아 11:1-7의 본문 재구성은 호세아서 전체에서 11장이 가지는 독립된 유일한 문학구조를 형성하는 데 통일성을 부여한다. 재구성된 본문의 주제는 부모 은유로 표현된 변절한 이스라엘을 향한 야훼의 사랑으로, 앞(10:9-15) 뒤(12:1-15[11:12-12:14]) 본문과도 독자적인 주제를 가진다. 야훼의 일관된 1인칭 관점(10절 3인칭 관점 제외)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야훼의 사랑에 대한 역사적 회고(1-4절),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변절이 초래한 임박한 심판(5-7절), 야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복될 미래(8-11절)의 구조를 이룬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칭대명사는 “어형론적인 병행법 (*morphologic parallelism*)”²⁰⁾ 구조 안에서 다양하게 전환된다(3인칭 단수, 4상반절, 5상반절, 6상반절; 3인칭 복수, 2, 3, 4상반절, 5하반절, 6하반절, 10, 11절; 2인칭 단수, 8, 9절). 이 메시지 주제의 통일성을 구성하는 중심어휘들은 — קרא(1, 2, 7절), הלך, בוא(2, 9, 10절; 참조, חרד, 10, 11절), שוב(5, 7, 11절; 참조, הפך, 8절), אכל(4, 6절)— ‘야훼의 사랑’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반면, 동시에 ‘이스라엘의 반역’을 암시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20) J. L. Kuge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22.

“קרא(부르다, 선포하다)”와 “בוא/הלך(가다, 오다; 참조, ררר, 떨다, 전율하다)”는 부모 은유가 암시하는 하나님 사랑 주제를 구성하는 기본을 이룬다. 11장은 야훼가 이스라엘을 불러 부모와 자녀관계를 맺은 것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부름에서 돌아서서 바알과 우상을 좇으므로 야훼와의 관계를 파기한다(2, 7절). 야훼의 오심은 그의 자녀를 돌보고 지도하거나(3, 4절), 심판을 암시한다(5, 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변절로 인한 심판은(5, 6절) 야훼의 오심이 분노를 잠재우고 용서함으로(9절) 치유될 것이다. 야훼의 이스라엘을 부름으로 시작한 메시지는, 사자의 위엄으로 오시는 야훼가 그의 자녀들을 다시 부르고, 이제 자녀들은 야훼를 경외하므로 부름에 응답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약속으로 마감한다(10, 11절).

“שוב(돌아오다, 되돌아가다, 5, 7, 11절; 참조, הפך, 뒤집어엮다, 8절)”는 קרא, הלך, בוא와 함께 본문 주제의 통일성을 이룬다. 이스라엘은 야훼가 부모이며(1, 4절), 돕는 자이며(3절) 치료하는 자임을(3절) 알지 못한다. 야훼의 부름에서 돌아선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집트로(5절), 바알에게로(7절)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야훼에게 돌아오기를 거부하므로(6절) 전쟁의 혼란을 겪을 것이지만, 야훼의 용서가(9절) 이스라엘이 떨며 야훼를 따르도록 이끌 것이다(10, 11절).

“אכל(먹다, 삼켜버리다, 4, 6절)” 또한 부모 은유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어휘이다. 야훼는 그의 자녀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부모이다(4절). 반대로 이스라엘의 변절 결과는 칼이 도시들을 삼키는 위험을 초래한다(6절). 하지만 야훼의 사랑은 도시를 삼키려는 분노가 아니라(8, 9절) 미래의 평화를 이끌어 낸다. 그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에서 다시 정착하게 할 것이다(11절). 전체적으로는 1절의 קרא와 הלך는 11절의 הלך와 אכל로 대치 구조(a chiasitic structure)를 이루며 11장의 문학적 통일 구조를 구성한다.

호세아 11장 부모 은유가 암시하는 신학적 주제는 야훼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묘사한 ‘하나님의 선택’²¹⁾이다. 이 선택은 ‘야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해하는 본질이다. 호세아서는 야훼와 이스라엘 관계 근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데서 출발한다(11:1; 12:10[9]; 13:4). 부모 은유를 도입하여 본문은 반역하는 자녀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이 야훼의 선택을 파기했음을 지적한다. 은유적 표현에서 야훼는 대의(tenor)로서 역할을, 사랑하는 부모는 은유의 매체(vehicle) 역할을 한다. 야훼에게 선택된 이스라엘이 대의의 역할을, 고집스럽게 반역하는 자

21) 참조, H. D. Pruess, *Old Testament Theology*, 2 vols. The Old Testament Library, L. Perdue, tra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H. H. Rowley, *The Biblical Doctrine of Election* (London: Lutterworth Press, 1950); S. T. Sohn, *The Divine Election of Israel*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1); and T. C. Verizen, *Die Erwählung Israels nach dem Alten Testament* (Zurich: Zwingli-Verlag, 1953).

녀는 은유적 매체 역할을 한다.²²⁾ 야훼는 부모로서, 자신을 반역하는 자녀에 대해 지속적인 고통을 감내하며 사랑을 베푸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야훼는 부모의 심정으로 깊은 슬픔과 고뇌의 긴장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갈등한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변절을 경험하는 야훼의 분노와 고뇌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와 고통을 끌어안는 사랑으로 승화된다.²³⁾ 이 사랑은 반역한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법(참조, 신21:18-21)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אל אנכי ולא-איש בקרבך קדוש”(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다.) 관계 파기로 심판을 초래한 인간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한 하나님은 “ 긍휼히 여기는 마음(compassion)”으로 자신의 “거룩하심(holiness)”을 전환한다.²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죄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고통 하는 사랑(divine suffering love)’의 절정이다. 이 사랑이 반역한 자녀가 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고 파기된 관계를 치유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 사랑에 대한 킹(P. King)의 이해가 아마도 가장 합당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불멸이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²⁵⁾ 이 불변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파기한 관계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1:9)”라는 진노가 “네가 야훼를 알 것이며(2:22[20])”,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이다(2:25[23])”로 회복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본질이 그의 백성의 궁극적인 삶이며 희망이다.

5. 나가는 말

본문 비평적 고찰에서 논의했듯이, 마소라 본문이 가지는 호세아 11:1-7의 난해한 문장 구조의 재구성에 따라 본문 구조와 내용의 통일성을 구성할 수 있

22) 어의적인 면(semantic field)에서 은유적 표현 과정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제, 대의와 은유적 매체(a tenor and a vehicle)의 상호작용을 수반한다. Tenor는 ‘근원적인 개념’ 혹은 ‘가장 중요한 주제’인 반면, vehicle은 ‘형상화된 속성,’ 혹은 ‘이차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이 두 개념이 서로를 대체(substitution)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하여 보다 설득력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참조, Richards, *The Philosophy of Rhetoric*, 96-97; Black, *Models and Metaphors*, 31-37).

23) T. Fretheim, *The Suffering of God: An Old Testament Perspective*,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120.

24) W. Brueggemann, *Old Testament Theology: Essays on Structure, Theme, and Text*, P. D. Miller,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40-41.

25) P. King, “Hosea’s Message of Hope”, *Biblical Theology* 12:1 (Jan. 1982), 91.

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은유’를 통해 파기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 사랑(divine love)’에 초점을 두었다. 재구성된 본문을 정리하면, 2절 $\text{מִפְּנֵיהֶם כֵּן הִלְכוּ לָהֶם כֵּן כִּקְרָאֵי לָהֶם}$, “그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갔다”를 1절 야훼와 주어를 통일시켜 $\text{מִפְּנֵי לָהֶם כֵּן הִלְכוּ מִפְּנֵי לָהֶם}$, “내가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로 읽는다. מִפְּנֵיהֶם הֵם 으로 כִּקְרָאֵי 의 주어와 대명사 접미사의 통일성(“내가 부를수록 ... 나에게서”)을 이루며, “ הֵם (그들이)”은 대명사 접미사가 아니라, 바로 다음 문장을 이끄는 “ וַיִּבְחָרוּ (그들이 희생제물을 바쳤다)”와 일치하는 주격 인칭대명사로 읽는다. 3절의 $\text{עַל-זִרְעוֹתָיו אָקָחַם}$, “그가 그들을 그의 품에 안았다”를 עַל-זִרְעוֹתָיו , “내가 그들을 내 품에 안았다”로 교정하여 1, 2절 야훼의 1인칭 관점에서 메시지의 통일성을 이룬다. 4절 “ עַל (명에)”은 “ עוֹל (갓난아이)”로 교정하여 부모와 자녀관계를 암시하는 은유적 표현의 통일성 있는 구조를 이룬다. 따라서 “ כְּמִרְמֵי עַל (명에를 벗기는 사람처럼)”은 “ כְּמִרְמֵי עוֹל (갓난아이를 들어올리는 사람처럼)”로 읽는다. 4절의 마지막 구절 $\text{וַאֲטֵ אֱלֹהֵי אוֹכִיל לוֹ}$ 은 5절을 여는 부정사 לֹא 와 연결하여 이해한다. לֹא 는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ל 와 3인칭 남성 단수 접미사 ו 와 결합된 לוֹ 로 읽는다. $\text{וַאֲטֵ אֱלֹהֵי אוֹכִיל לוֹ}$, “그리고 내가 그에게 구푸려 그를 먹였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6절 בְּכַד/בְּכַד 는 본문에서 “ מִמַּעֲצוֹתיהֶם (그들의 헛된 계획 때문에)”와 통일성 있는 의미를 가지는 “거짓 예언자”로 번역한다. 7절은 문장구조 재구성이 불가능하지만, עַל 을 “ בְּעַל (바알)”로 읽으면서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을 바탕으로, “내 백성이 나를 반역하고 돌아서서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절대로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로 번역한다. 재구성된 본문을 바탕으로 전체 구조를 보면(3.1 본문 번역 참조), 호세아 11장은 예언자를 통해 선포된 야훼의 1인칭 관점(10절 제외) 메시지로,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과거(1-4절), 현재(5-7절), 미래(8-11절)의 역사적 정황에서 조명하는 ‘하나님 사랑’이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변절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11장 주제는 호세아서 메시지 전체를 포함하는 문학적 일관성을 구성한다. 이는 특별히 결혼 은유와 부모 은유의 예언적 메시지를 통하여 상호관계의 신뢰와 책임의 본질을 강조한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언약 파기를 토라(Torah)에 대한 반역(4:1-3; 8:1, 12), 헛된 예배와 우상숭배(2:15[13]; 4:11-15; 6:1-6; 7:14; 9:1-5; 11:2; 13:1-2),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4:4-9; 5:1-3; 6:9; 7:3-7; 8:1-4)으로 고발한다. 예언자는 야훼를 잊은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간 상호간에 책임 있는 사랑과 신의도 없고, 토라는 불법이 되어 폭력이 난무하다고 법적논쟁을 제안한다(4:1-3).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다(6:6). 이

회복(11:10-11)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변절에 대한 진노를 잠재우고(11:8-9),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므로 출발한다(11:9). 이 사랑의 본질이 인간의 반역을 끌어안고 용서하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를 창조한다(2:20-25[18-23]). 이 사랑이 존재하는 곳에 희망이 있다.

<주요어>(Keywords)

호세아 11, 본문 비평, 은유 해석, 부모 은유, 하나님 사랑.

Hosea 11, Textual criticism, a metaphorical interpretation, the parental metaphor, divine love.

<참고문헌>(References)

- Anderson, F. I. and Freedman D. N., *Hosea: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24, Garden City: Doubleday, 1980.
- Baumgartner, K., *The Hebrew &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study ed., 2 vols., Leiden; Boston; Koln: Brill, 2001.
- Birch, B. C., *Hosea, Joel and Amo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Black, M., *Models and Metaphor: Studies in Language and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1962.
- Brown, F., Driver, S. R., and Briggs, C.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Brueggemann, W., *Old Testament Theology: Essays on Structure, Theme, and Text*, Miller, P. D.,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 Buss, M., *The Prophetic Word of Hosea: A Morphological Study*, Berlin: Verlag Alfred Topelmann, 1969.
- Daniels, D., *Hosea and Salvation History: The Early Translations of Israel in the Prophecy of Hosea*, Berlin: W. de Gruyter, 1990.
- Davis, G., *Hosea*, The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2.
- Eidevall, G., *Grapes in the Desert: Metaphors, Models, and Themes in Hosea 4-14*,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1996.
- Ezra, A. I., *The Commentary of Rabbi Abraham Ibn Ezra on Hosea*, Abe Lipshitz, ed., trans., New York: Sepher-Hermon Press, Inc., 1988.
- Fretheim, T., *The Suffering of God: An Old Testament Perspective*,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Fortress Press, 1984.
- Garrett, D., *Hosea, Joel*, The American Commentary 19A, Nashville: Broadman and Holman Publishers, 1997.
- Gordis, R., *The Word and the Book: Studies in Biblical Language Literature*,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Inc., 1976.
- Gross, H., "Das Hohelied der Liebe Gottes: Zur Theologie von Hosea 11", Rossmann, H., and Ratering, J., eds., *Mysterium der Gnade: Festschrift für Johann Auer zm 65*, Regensburg: Friedrich Pustet, 1975.
- Jeremais, J., *Der Prophet Hosea*, Go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3.

- Jouon, P., *The Grammar of Biblical Hebrew*, T. Muraoka, trans., Rome: Editric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2000.
- Kautzsch, E., ed., *Gesenius' Hebrew Grammar*, 2nd ed., Cowley, A. E., trans., Oxford: Clarendon Press, 1910.
- King, P., "Hosea's Message of Hope", *Biblical Theology Bulletin* 12:1 (1982), 91-95.
- Kugel, J. 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 Kuhnigk, W., *Nordwestsemitische Studien zum Hoseabuch*, *Biblica et Orientalia* 27,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4.
- Macintosh, A. A.,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Hosea*,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997.
- Mays, J. L., *Hosea*,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9.
- McComiskey, T., *The Minor Prophet: Hosea, Joel and Amo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2.
- Perdue, L. G., *Wisdom in Revolt: Metaphorical Theology in the Book of Job*, Bible and Literature Series 29, Decatur: The Almond Press, 1991.
- Perdue, L. G., *The Collapse of History: Reconstructing Old Testament Theology*,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Fortress Press, 1994.
- Pruess, H. D., *Old Testament Theology*, 2 vols., The Old Testament Library, Perdue, L. G., tran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5.
- Richards, I. A., *The Philosophy of Rhetor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 Rowley, H. H., *The Biblical Doctrine of Election*, London: Lutterworth Press, 1950.
- Rudolph, W., *Hosea*,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Gutersloh: Gutersloher Verlag shaus Gerd Mohn, 1966.
- Schungel-Straumann, H., "God as Mother in Hosea 11", *Theology Digest* 34:1 (Spring 1987), 3-8.
- Smith, D. A., "Kinship and Covenant: An Examination of Kinship Metaphors for Covenant in the Book of the Prophet Hosea",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94.
- Smith, G., *Hosea/Amos/Micah*,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2001.
- Sohn, S. T., *The Divine Election of Israel*,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1.
- Stuart, D., *Hosea-Jonah*,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7.
- Trible, P., *God and The Rhetoric of Sexuality*,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 Van Dam, C., “ברד”, Van Germeren, W. A.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and Theological Exegesi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 Verizen, T. C., *Die Erwählung Israels nach dem Alten Testament*, Zurich: Zwigli-Verlag, 1953.
- Ward, J. M., *Hosea: A Theological Commentary*, New York: Harper & Row, 1966.
- Wheelwright, P., *Metaphor and Reali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2.
- Wolff, H. W., *Hosea: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Stansell, G., trans., Hanson, P., ed., Hermeneia: Fortress Press, 1974.
- Yee, G. A., *Composition and Tradition in the Book of Hosea: A Redaction Critical Investigation*, SBL Dissertation Series 102, Atlanta: Scholars Press, 1987.
- Zobel, H. J., “ברד/ברד”, Botterweck, J., and Ringgren, H.,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Green, D., tran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Abstract>

**The Metaphorical Interpretation of Hosea 11:
A Textual Critical-Analysis of the Text Based on Early Versions**

Dr. Kyung-Hee Park
(Korean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a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divine love in Hosea 11. For the full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Hosea 11 and the theological implications of the text, this study is organized into two steps. First, a textual-critical analysis is employed. The study primarily investigates the textual variants among the early versions of the text and translates the text. Hosea 11 in some places remains textually difficult to translate and interpret with certainty so that it requires some textual emendation. The translation of the text primarily follows the literal reading of the Masoretic text, and then reconstructs it to a degree. This reconstruction follows early versions of the text and references on the textual emendations. Second,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divine love in the context of the metaphors used for it in Hosea 11. A comprehensive textual analysis of Hosea 11 with the study of metaphorical meaning conceptualizes an understanding of divine love in the book of Hosea. Accordingly, the metaphorical interpretation is employed. The prominent metaphor in Hosea 11 is the parental metaphor which covers the whole theme of divine love. As a parent Yahweh has suffered from the waywardness of his children. Yahweh's compassionate love toward his obstinate children, however, overcomes the punishment. Yahweh's love in his holiness shall not end a relationship with his children. This power of divine love has embraced the failure of the chosen people throughout their history. This power of divine love also will be the ultimate hope and peace in the future. In the metaphorical description of Yahweh as parent, divine love and divine suffering coexist. Yahweh justifies his suffering love with the statement: "I am God no human, the Holy One in your midst." The power of divine love emanating from holiness of God embraces the apostasy of the people. In this divine love forgiveness yields reconciliation, which creates a new wa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Israel and between human relationships in the community. There is hope where this love lives.